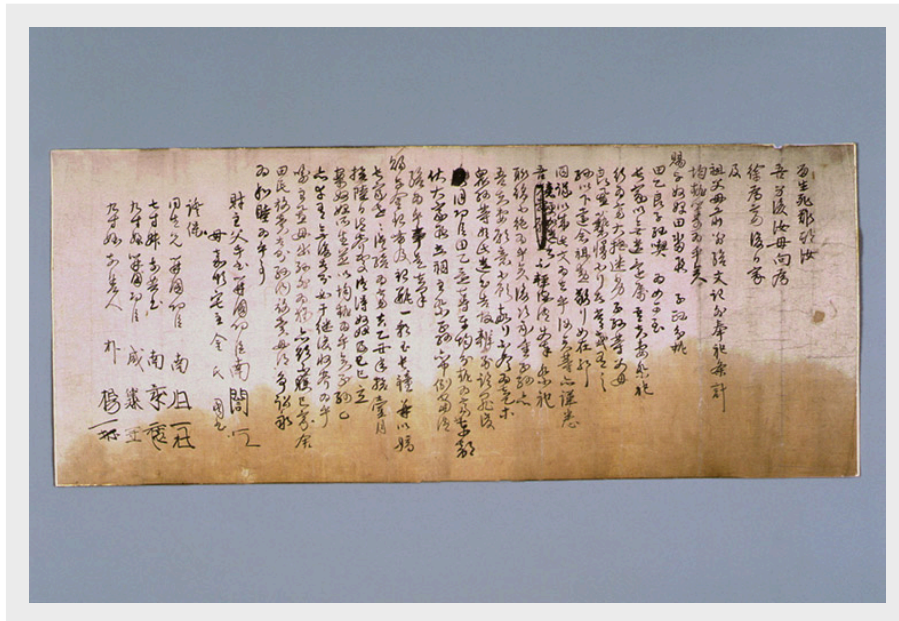


남은[南閔]

개국공신, 왕자의 난으로 쓰러지다

1354년(공민왕 3) ~ 1398년(태조 7)



1 개요

남은(南閔)은 1354년(공민왕 3)에 의령 남씨(宜寧南氏) 집안에서 4형제 중 둘째로 태어났다. 할아버지는 영광군사(靈光郡事)를 지냈던 남천로(南天老)이고, 아버지는 밀직부사(密直副使) 남을번(南乙蕃)이다. 남은이 형 남재와 함께 개국공신에 책봉되자 남을번이 검교시중(檢校侍中)의 직을 받았다.

남재는 1374년(공민왕 23)에 성균시에 합격하여 사직단직(社稷壇直), 사복정(司僕正) 등을 거쳤다. 1388년(우왕 14) 위화도회군에 참여함으로써 회군공신에 책봉되었다. 이후 개성윤(開城尹) 밀직부사(密直副使), 경상도절제사 등을 역임하였다. 그리고 조선 건국을 주도하며 태조대 정국을 주도하였으나, 1398년(태조 7)에 제1차 왕자의 난으로 죽임을 당했다. 이후 태조 묘정에 배향되었고, 시호는 강무(剛武)이다. 한편, 그와 관련된 유물로 재산 상속에 관련한 내용을 담은 분재기(分財記)가 '남은유서분재기부남재왕지(南閔遺書分財記附南在王旨)'라는 이름의 모사본(摹寫本)으로 전해지고 있다.

2 고려 말의 정치활동

『고려사』 열전과 『태조실록』 졸기(卒記) 기록에서, 남은은 매우 호탕하고 비범하면서 어려서부터 기이한 계책을 내기를 좋아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관련사료](#) [관련사료](#) 그래서인지 그는 왜구를 방어할 때도 적극적인 면모를 나타냈다. 1385년(우왕 11) 삼척군에 왜구가 침략했을 때 고려 군사가 지키고 있던 성이 작고 위험하여 방어하기가 어려웠다. 그런데 남은이 자신을 지삼척군사(知三陟郡事)로 천거하여 방어에 나섰고, 직접 10여 기를 거느리고 성문을 열고 돌격하여 왜구를 무찔렀다. 남은이 이성계와 언제 처음으로 만났는지 확실치 않지만, 그 무렵이 아닐까 한다.

1388년(우왕 14) 요동 공벌시에는 이성계를 따라 위화도까지 갔고, 남은은 조인옥(趙仁沃) 등과 함께 회군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비밀리에 이성계의 왕위 추대를 모의하였다. 이를 들은 이성계나 이방원은 외부 발설하지 말도록 했는데, 당시 남은 등의 제안은 가장 이른 시기에 이성계의 추대를 거론한 사례로 보인다. 공양왕 즉위 후 남은은 회군공신에 책봉되었고, [관련사료](#) 응양군상호군, 개성윤, 밀직부사 등을 역임하였다.

한편, 점차 왕조 교체를 둘러싼 대립이 격화되면서 1391년(공양왕 3) 정도전(鄭道傳), 정충(鄭摠), 김자수(金自粹), 김초(金貂) 등은 강력한 논조로 척불(斥佛)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척불 논쟁은 공양왕의 숭불(崇佛)을 비판함으로써 왕조 교체가 필요하다는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 무렵 남은도 상소하였다. 그는 직접적으로 척불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김자수 등의 척불 관련 상소가 이어지는 가운데 공양왕이 신하들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음을 강하게 비판하였다. 그는 변안열(邊安烈), 김종연(金宗衍), 지용기(池湧奇) 등의 처벌도 주장했다. [관련사료](#)

한편, 그해 후반기에는 이성계세력에 반대하는 이들이 정몽주(鄭夢周)를 중심으로 권력을 장악해 나갔다. 이에 정도전이 유배되었고, 남은은 관직에서 물러났다. [관련사료](#)

1392년(공양왕 4) 4월에는 조준(趙浚), 정도전, 남은, 윤소종(尹紹宗), 남재, 조박(趙璞) 등에 대한 유배 조치가 내려졌다. [관련사료](#) 하지만 그로부터 10여 일 후 정몽주가 이방원에 의해 죽임을 당했고, 고려의 몰락은 가시화되었다. 6월에는 조준이 경기좌우도절제사((京畿左右道節制使), 남은이 경상도절제사(慶尙道節制使)가 되는 등 건국세력은 병권까지 장악했다. [관련사료](#)

3 개국공신 책봉과 조선 초의 정치활동

1392년 7월 17일, 태조가 백관의 추대를 받아 왕위에 올랐다. 남은 등의 건국세력은 5일 전에 왕대비인 정비 안씨(定妃安氏)에게 공양왕의 폐위를 고했고, 남은이 정희계(鄭熙啓)와 함께 왕대비의 교지를 받아 선포하였다. 그리고 배극렴과 조준을 필두로 하여 이성계의 저택에 나아가 이성계에게 왕위에 오르기를 청하였다. 여기에 남재·남은도 포함되어 있었고, 두 형제 모두 개국공신

에 책봉되었다. [관련사료](#) 이때 남은은 이성계의 추대에 기뻐하지 않은 대사헌 민개(閔開)를 죽이고자 했으나, 이방원이 만류하였다고 한다. [관련사료](#)

남은은 건국에 반대한 이숭인, 이종학 등의 제거에도 깊숙이 개입했던 듯하다. 훗날 태종대에 이숭인 등을 죽이라는 명령이 누구에게서 비롯한 것인지를 두고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당시 개국공신들은 남은과 정도전이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국가를 위한 차원에서 이숭인, 이종학을 죽였기 때문에 용서해 줄 것을 청하기도 했다. [관련사료](#) 사후에 이러한 논란이 있기는 했지만, 건국 당시 남은은 왕조 교체의 핵심 인물이었음은 분명하다.

태조대에 남은은 판중추원사, 지문하부사, 참찬문하부사, 삼사(三司) 우복야(右僕射)·좌복야(左僕射), 참지문하부사 등을 역임하였고, 계룡산 신도(新都) 건설, 한양 천도와 건설, 왜구 방어 등에 기여하였다. 또한 그는 조준, 정도전 등과 함께 정치운영과 병권을 장악하면서 권력을 키워나갔다. 1394년(태조 3) 변중량(卞仲良), 박포(朴苞) 등은 이에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 그들의 불만이 논란이 되자 국문이 행해졌고, 그 결과 변중량 등은 유배되었다. 반면, 남은 등의 권력은 태조의 비호 아래 더욱 강화되었다. 당시 태조는 남은, 정도전, 조준과 같은 관료들에 대해 '수족과 같은 신하[고굉지신(股肱之臣)]로서 한결같이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표현하였다.

[관련사료](#)

4 제1차 왕자의 난의 발생, 그리고 죽음

1398년(태조 7) 8월, 제1차 왕자의 난이 발생하였다. 변란의 발생 배경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있었는데,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은 왕위계승을 둘러싼 대립이다. 태조는 건국 직후 왕자들 중에서 신덕왕후(神德王后) 강씨 소생의 어린 막내아들인 이방석(李芳碩)을 세자에 책봉했던 터였다. 따라서 건국 과정에서 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권력에서 배제되었던 신의왕후 한씨 소생의 아들들의 불만은 컸다.

더욱이 병권을 둘러싼 대립이 더해지면서 갈등은 최고조에 이르렀다. 정도전은 군제 개혁을 통해 종친들에게 있던 병권을 공적 지휘체계에 편입하고자 했고 그들이 개별적으로 소유한 사병(私兵)도 혁파하고자 했다. 그렇게 되면 왕자와 종친은 그나마 갖고 있던 병권마저 빼앗기게 되는 것이었다. 결국 이방원은 '왕자의 난'이라는 변란을 통해 정도전, 남은 등을 제거하고, 태조의 왕위를 신의왕후 소생의 이방과(李芳果, 정종)에게 넘겨주도록 함으로써 자신의 권력 기반을 마련하였다.

하지만 『태조실록』에서는 정도전, 남은 등이 '몰래 반역을 도모하여 여러 왕자와 종실들을 해치려 꾀하다가' 혹은 '유얼(幼孽, 어린 서얼, 세자 이방석)을 끼고 여러 적자(嫡子)를 해하려 했기 때문에' 참형을 당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태조실록』이 왕자의 난을 승리로 이끈 주역들에 의해 편찬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서, 제1차 왕자의 난의 전개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남은을 비롯하여 정도전, 심효생(沈孝生), 이근(李勲), 이무(李茂), 장지화(張志和), 이직(李稷) 등이 남은의 첩의 집에서 '태조의 병이 위독하다고 하여 여러 왕자들을 경복궁으로 불러들여 공격할'

것을 비밀리에 모의했고, 이 사실을 이무가 이방원에게 알렸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방원은 자기 세력을 규합하여 무기를 갖추고 군사를 갖춰 한밤중에 선제공격했다. 당시 이방원의 군사들은 '정예 기병이 광화문에서 남산까지 짹 찼다'고 할 정도였는데, 그들은 남은의 첩의 집을 에워싼 후 주변의 집들을 불사르고 나서 정도전 등을 잡아서 죽였다. 한편, 남은은 자신의 반인(伴人, 수행인)들과 함께 도망가 도성 밖에 숨었다가 스스로 순군문(巡軍門)으로 가서 참형을 당했다.

관련사료 당시 그의 아우 우상절도사(右廂節度使) 남지(南贄)가 함께 죽임을 당했으며, 형 남재는 이방원의 비호로 화를 면했다. **관련사료** 참형을 당한 그 당시 남은의 나이는 45세였다. 훗날 1422년(세종 4) 태상왕 태종은 남은이 조선 건국에 큰 공헌을 세웠다고 하여 '강무(剛武)'의 시호를 주도록 하였고, **관련사료** 남은, 남재, 이제(李濟)를 태조의 묘정에 추가 배향되었다. **관련사료**